

##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연구

김효실<sup>1</sup> · 이영아<sup>2</sup> · 김수진<sup>3</sup> · 채수경<sup>4</sup> · 임진형<sup>5</sup>

<sup>1</sup>제주한라대학교 보건행정과, <sup>2</sup>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sup>3</sup>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sup>4</sup>제주한라대학교 작업치료과, <sup>5</sup>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1)

## Drinking behavior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 in Jeju for the safe campus life

Hyo-Sil Kim<sup>1</sup> · Young-Ah Lee<sup>2</sup> · Soo-Jin Kim<sup>3</sup>

Soo-Gyung Chae<sup>4</sup> · Jin-Hyung Lim<sup>5</sup>

<sup>1</sup>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Cheju Halla University

<sup>2</sup>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Cheju Halla University

<sup>3</sup>Dep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sup>4</sup>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eju Halla University

<sup>5</sup>Dept. of Early Children Education, Cheju Halla University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rin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Jeju for the safe campus life.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549 students in 4 universities in Jeju.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9.0 program. The questionnaire instruments consisted of Alcohol Use Disorders of Identification Test-Korea (AUDIT-K) an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adapted by Chon.

**Results:** The alcohol consumption rate of participants accounted for 96.2%. The binge drinking rate in female students were 33.9% and that in male students was 29.5%. The result by scoring AUDIT showed that 30.7% of participants were normal drinking group, 36.0% were hazardous drinking group, and 33.3% were estimated alcohol abuse group. The average score of stress was 1.45 by Likert 4 point

Received: July 5, 2016    Revised: July 28, 2016    Accepted: August 10, 2016

\*Correspondence to Hyo-Sil Kim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Cheju Halla University, 38, Halla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092, Republic of Korea

Tel: +82-64-741-7665    Fax: +82-64-741-6767    E-mail: pat@chu.ac.kr

scale. The female students tended to have more stresses than male.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n drinking behavior were the first alcohol drinking( $\beta = -.250, p < .001$ ), gender( $\beta = .202, p < .001$ ), and relationship problem( $\beta = .116, p < .05$ ).

**Conclusion:** The drinking rate of university students revealed higher than that in other age groups. So the early systematic education is strongly recommended to prevent the physical and mental side effects.

**Keywords:** Safety, Campus life, Drinking behavior, AUDIT score, Stres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술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물질로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1], 원래 흥이 많은 우리 민족은 술을 즐겼고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알코올은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향상시키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긴장을 감소시키며, 부정적이고 우울한 기분을 바꾸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이 음주를 일으키고, 술을 마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2].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및 구강암, 식도암, 간암 등과 같은 암 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3]. Shim과 Choi는 암발생 모형화 및 추계를 통해 국내에서 흡연에 의한 사망자수보다 음주로 발생한 사망자수가 더 많음을 밝히고 있다[4].

음주는 가정에서 폭력으로 이어져 자녀와 부부간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원인의 3위(12.5%)가 음주로 인한 것이었고[5], 부모의 음주행동을 자녀가 학습하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음주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폭력, 강도, 폭행, 성폭력,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6,7].

음주는 세계 공통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학생의 경우 83%가 술을 마시고, 41%는 폭음(binge drinking)을 하며 30~40%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문제성 음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8,9]. 영국 대학생의 경우도 남학생의 39.6%와 여학생의 35.9%가 폭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 사귀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교의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대학생이 많아지면서 폭음이 증가하였다[10,11].

우리나라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간 음주율은 94.4%로 미국 대학생의 86%, 우리나라 성인의 79.0%보다도 높았으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월간음주율의 차이가 5% 내외로 여학생의 음주율이 남학생 못지않게 높으며, 폭음률에서 남학생 42%, 여학생 42.7%로 여학생들의 폭음률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12].

Lee[13]에 의하면 음주관련사고의 원인을 폭음으로 규정하고 대학생의 폭음률이 56.9%로 처음 음주를 권유한 사람이 친구나 동료이기보다는 부모나 집안어른일 때 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5.2배나 높았으며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31.8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 스트레스에서의 해방과 함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음주가 허용되는 분위기로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엠티(membership training, MT), 대학 축제 등의 대학 생활의 일상에서 쉽게 음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음주문화는 개인의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학업 능률의 저하 및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폭음, 음주 관련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13,14]. 특히 여대생의 경우 과음으로 인해 스스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음주를 하며, 이러한 음주 행태가 친교의 목적인 사교적 음주(social drinking)의 범위를 벗어나 문제음주(problem drinking)의 수준으로 이어지며[15], 이와 같이 잦은 음주, 폭음으로 인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려 학업수행, 정신건강, 사회적응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대학생 음주문화에서 자주 발견되는 폭음과 음주 강요는 대학 신입생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망사고가 빈번하므로 이제 대학생 음주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인식의 전환과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6]. 따라서 제주도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을 살펴보고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학생 자신들의 음주심각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음주행동을 인식시키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후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음주실태와 음주행동(음주빈도, 음주량, 폭음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음주행동 및 알콜사용장애 선별 도구인 AUDIT-K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음주검사결과를 파악하고 개인특성에 따른 음주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2)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

하고, 개인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3) 대상자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시내 소재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600부 설문지 중 559부를 회수(회수율 93.2%)하였으며 그 중 불안정한 응답지 10부를 제외한 총549부(남 260명, 여 289명)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음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주문제의 도구는 Alcohol Use Disorders of Identification Test-Korea (AUDIT-K)로 측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AUDIT를 한국인에 적합하게 개발한 한국형 알콜사용장애 선별도구인 AUDIT-K를 사용하였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하도록 음주행태의 위험 수준을 (1) 정상음주군, (2) 위험음주군, (3)알콜사용장애 추정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사회적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절단점을 제시하였는바 그 기준을 적용하였다[17]. 본 연구에서의 AUDIT 점수는 전체 10개 문항의 합으로 점수의 범위는 0점~40점이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4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음주량은 한 번

술을 마실 때의 주종별 술 소비량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18]이 사용한 표준 잔(standard drink)을 이용하였다. 표준 잔(standard drink)의 정의는 소주 1잔과 맥주 1잔을 의미하며 이는 각 잔에 포함된 알코올 함유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음주실태 조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 표준 잔을 순수 알코올 10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미국의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중독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 이하 NIAAA) [19]에서도 순수 알코올 10g을 표준 잔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각 술의 종류에 따른 고유한 한잔 정도이다. 예를 들어 소주의 경우 약 10ml에 해당하는 소주잔 1잔, 맥주는 335ml 1잔, 와인의 경우에는 120ml 정도의 양을 일컫는다.

음주집단 분류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들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연구자들의 경우 음주빈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 1회 이하이면 경도음주자(mild drinker), 주 2~3회 마시면 중도음주자 (moderate drinker), 주 4회 이상 마시면 과음주자 (heavy drinker)로 분류[1]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음주빈도를 이 기준에 적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음주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정상음주군, 문제음주군,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상음주군의 범위는 남자 2~4잔, 여자 1~2잔 정도를 포함하며 문제 음주군은 음주로 인한 폐해 발생 위험이 높은 수준의 음주 행동으로 남성은 주당 14 표준 잔 초과, 여성은 7 표준 잔 초과이거나 남성은 1일 40g, 여성은 20g 초과인 경우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문제음주란 습관적인 음주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음주만을 포함시키는 것부터 알코올 남용이

나 의존 수준까지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음주량이나 음주빈도로 문제음주자를 정의하고 있다[1]. 또한 영국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남성은 소주(50ml) 3~4잔 이하, 여성은 2~3잔 이하가 최대 적정 음주량이다.

폭음의 기준은 나라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단기간에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폭음으로 간주된다. 미국의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중독 국가자문위원회에서는 폭음에 대해 2시간 동안 남성이 5 표준 잔 이상, 여성은 4 표준 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제음주를 주당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14잔 초과, 여성의 경우 7잔 초과하는 경우 혹은 1회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4잔 초과, 여성의 경우 3잔 초과인 경우로 정의한다 [19].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것을 폭음으로 규정하여 매우 위험한 수준의 알코올 소비로 생각한다 [13,20].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폭음의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1년 우리나라 법원 재판부에서 남자는 하루 9잔, 여자는 5잔을 폭음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21]. Lee[13]는 하루에 5잔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것은 폭음(binge drinking)으로 정의하였고,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폭음의 기준은 남자는 하루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으로, 폭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상음주군을 남자는 하루4잔 이내, 여자는 하루 2잔 이내, 문제음주군은 남자는 5~6잔, 여자는 3~4잔, 폭음은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으로 정의하여 음주군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와 같이 음주형태의 위험수준을 음주량이나 음주횟수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음주형

태의 위험수준을 정상음주군, 위험음주군, 알콜사용장애 추정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한국어판 AUDIT의 절단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체 AUDIT 10문항을 기준으로 정상음주군은 남자(0~9점), 여자(0~5점), 위험음주군은 남자(10~19점), 여자(6~9점), 알콜사용 추정군 남자(20~40점), 여자(10~40점)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정상음주군이란 위험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태의 중등도 이하의 음주행동을 말하며, 위험음주군은 음주로 인한 폐해 발생 위험이 높은 수준의 음주행동, 알콜사용장애 추정군은 알콜 남용이나 알콜의존이 의심되는 수준의 음주를 말한다.

## 2) 생활스트레스

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Chon[22]의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하여 8개 하위항목을 이용한 Kim[16]의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6개 하위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6개 하위척도는 크게 대인관계(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영역과 당면과제(학업, 장래 및 진로, 경제적 문제) 영역으로 분류되며,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경험의 유무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정도를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관계(5문항, Cronbach's  $\alpha = .877$ ), 친구관계(5문항, Cronbach's  $\alpha = .874$ ), 이성관계(5문항, Cronbach's  $\alpha = .886$ ), 학업문제(5문항, Cronbach's  $\alpha = .879$ ), 장래 및 진로(6문항, Cronbach's  $\alpha = .910$ ), 경제문제(5문항, Cronbach's  $\alpha = .916$ ) 이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AUDIT 점수에 따

른 분류분포는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고, 음주관련 사항은  $\chi^2$ 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으며 독립변수별 음주행동과 스트레스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통해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성별, 아버지 음주, 음주시작연령, 스트레스의 변인들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s)화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자 47.4%, 여자 52.6%였으며, 1학년 40.3%, 2학년 30.8%, 3학년 22.0%, 4학년은 6.9%였다. 거주형태를 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68.7%, 자취 및 하숙이 17.7%로 뒤를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96.2%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은 3.8%에 불과했다. Park과 Choi[23]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간 음주율은 94.4%로 본 조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흡연을 하는 학생은 24.2%로 음주율에 비해 흡연하는 학생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83.4%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절주나 금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42.4%로 절반이상의 학생이 절주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부모님의 양육태도는 44.4%가 애정형, 35.2%가 방임형이었으며 아버지의 음주율은 26.4%, 어머니의 음주율은 6.2%였다 <Table 1>.

### 2. 연구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Gender	Male	260 ( 47.4)
	Female	289 ( 52.6)
Grade	Freshman	221 ( 40.3)
	Sophomore	169 ( 30.8)
	Junior	121 ( 22.0)
	Senior	38 ( 6.9)
Residence	With parents	377 ( 68.7)
	Dormitory	44 ( 8.0)
	Boarding house	97 ( 17.7)
	Relative' s house	14 ( 2.5)
	etc	17 ( 3.1 )
Alcohol consumption	Yes	528 ( 96.2)
	No	21 ( 3.8)
Smoking	Yes	133 ( 24.2)
	No	398 ( 72.5)
	No answer	18 ( 3.3)
Influence on body	Yes	458 ( 83.4)
	No	91 ( 16.6)
Self-restraint education	Yes	233 ( 42.4)
	No	316 ( 57.6)
Parental attitude	Love type	244 ( 44.4)
	Overprotection	106 ( 19.3)
	Moderate type	193 ( 35.2)
	rejection type	6 ( 1.1)
Parental drinking	Both	297 ( 54.1)
	Only father	145 ( 26.4)
	Only mother	34 ( 6.2)
	Neither	73 ( 13.3)

첫 음주 시기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48.3%의 학생이 대학입학 후 음주를 시작하였고, 36.7%의 학생들이 고교시절부터 음주를 시작하였으며 전체조사대상자의 51.7%가 대학입학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음주를 시작할 때 친구들과 함께 마셨다는 응답이 63.8%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마셨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했다. 최근 음주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친구들이 모이면 습관적으로(28.8%), 인간관계에 필요하기 때문(27.7%), 음주를 함께한 대상으로 친구나 동창이 80.6%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사교적 음주(social drinking)의 성격을 갖

는 음주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이유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유는 15.7%에 불과했고, 주변의 권유나 강요에 의한 경우는 4.5%로 강요에 의한 음주는 높지 않았다. 음주 후 학습에 자주 방해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블랙아웃(black out,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음)을 경험한 비율은 40.9%로 남녀 거의 비슷한 수치였고 이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alcohol consumption

Variables		Gender			$\chi^2(p)$
		Male(%)	Female(%)	Total	
First alcohol consumption	Elementary school	7 ( 1,3)	4 ( 0,8)	11 ( 2,1)	5,957 (.202)
	Middle school	36 ( 6,8)	32 ( 6,1)	68 ( 12,9)	
	High school	99 ( 18,7)	95 ( 18,0)	194 ( 36,7)	
	University	108 ( 20,5)	147 ( 27,8)	255 ( 48,3)	
First drinking partner	Family/relatives	65 ( 12,3)	84 ( 15,9)	149 ( 28,2)	11,823 (.037)
	Friends	158 ( 29,9)	179 ( 33,9)	337 ( 63,8)	
	Senior/Junior	12 ( 2,3)	11 ( 2,1)	23 ( 4,4)	
	Opposite gender friends	7 ( 1,3)	1 ( 0,2)	8 ( 1,5)	
	Alone	5 ( 0,9)	0 ( 0,0)	5 ( 0,9)	
etc.	3 ( 0,6)	3 ( 0,6)	6 ( 1,1)		
Reason for drinking	Forced drinking	7 ( 1,3)	17 ( 3,2)	24 ( 4,5)	12,508 (.028)
	Relieving anxiety and stress	47 ( 8,9)	36 ( 6,8)	83 ( 15,7)	
	For human relationships	79 ( 15,0)	67 ( 12,7)	146 ( 27,7)	
	Love for drinking	33 ( 6,3)	38 ( 7,2)	71 ( 13,4)	
	Meeting with friends	64 ( 12,1)	88 ( 16,7)	152 ( 28,8)	
etc.	20 ( 3,7)	32 ( 6,1)	52 ( 9,8)		
Recent drinking partner	Family/relatives	7 ( 1,3)	21 ( 4,0)	31 ( 5,9)	15,802 (.007)
	Friends	47 ( 8,9)	231 ( 43,8)	425 ( 80,5)	
	Senior/Junior	79 ( 15,0)	11 ( 2,1)	38 ( 7,2)	
	Opposite gender friends	33 ( 6,3)	2 ( 0,4)	9 ( 1,7)	
	Alone	64 ( 12,1)	4 ( 0,8)	9 ( 1,7)	
etc.	20 ( 3,7)	9 ( 1,7)	16 ( 3,0)		
Learning difficulty due to alcohol	Never	133 ( 25,2)	189 ( 35,8)	322 ( 61,0)	17,708 (.001)
	Sometimes	64 ( 12,1)	36 ( 6,8)	100 ( 18,9)	
	Usually	37 ( 7,0)	32 ( 6,1)	69 ( 13,1)	
	Often	11 ( 2,1)	16 ( 3,0)	27 ( 5,1)	
	Always	5 ( 0,9)	5 ( 0,9)	10 ( 1,9)	
Health problem due to alcohol	Never	173 ( 32,7)	198 ( 37,5)	371 ( 70,3)	4,701 (.319)
	Sometimes	48 ( 9,1)	37 ( 7,0)	85 ( 16,1)	
	Usually	19 ( 3,6)	26 ( 4,9)	45 ( 8,5)	
	Often	7 ( 1,3)	13 ( 2,5)	20 ( 3,8)	
	Always	3 ( 0,6)	4 ( 0,8)	7 ( 1,3)	
Blackout	Never	130 ( 24,6)	148 ( 28,0)	278 ( 52,7)	.669 (.955)
	Once a month	96 ( 18,2)	95 ( 18,0)	191 ( 36,2)	
	Once a week	8 ( 1,5)	8 ( 1,5)	16 ( 3,0)	
	Always every day	4 ( 0,8)	5 ( 0,9)	9 ( 1,7)	
	No answer	14 ( 2,7)	20 ( 3,8)	34 ( 6,4)	

\*  $p < .05$  \*\*  $p < .01$  \*\*\*  $p < .001$

### 3. 연구대상자의 음주행동

대학생 음주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주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음주행동 혹은 음주행위라는 조작적 정의 속에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관련 문제를 포함하고, 나머

지는 음주행동이라는 조작적 정의 속에는 음주량과 음주빈도만이 포함되며 음주 관련 문제가 독립된 종속변수로 존재하는 것이다[18].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음주량과 음주빈도에 폭음횟수를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3. Drinking behavior of the subjects

Drinking behavior		Male	Female	Total	$\chi^2/p$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Mild drinker	175 ( 34.0)	225 ( 43.7)	400 ( 77.7)	13.925/.001**
	Moderate drinker	61 ( 11.8)	35 ( 6.8)	96 ( 18.6)	
	Heavy drinker	12 ( 2.3)	7 ( 1.4)	19 ( 3.7)	
	Total	248 ( 48.2)	267 ( 51.8)	515 (100.0)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Mild drinker	49 ( 9.5)	34 ( 6.6)	83 ( 16.1)	23.062/.000**
	Moderate drinker	47 ( 9.1)	58 ( 11.3)	105 ( 20.4)	
	Heavy drinker	152 ( 29.5)	175 ( 33.9)	327 ( 63.5)	
	Total	248 ( 48.2)	267 ( 51.8)	515 (100.0)	
Frequency of binge drinking	Never	32 ( 6.3)	54 ( 10.6)	86 ( 16.9)	32.679/.000***
	Once a month	120 ( 23.6)	163 ( 32.0)	283 ( 55.6)	
	Once a week	50 ( 9.8)	38 ( 7.5)	88 ( 17.3)	
	Always	42 ( 8.3)	10 ( 2.0)	52 ( 10.2)	
	Total	244 ( 47.9)	265 ( 52.1)	509 (100.0)	

\*\*  $p < .01$  \*\*\*  $p < .001$

Table 4. AUDIT-K score result

Group	AUDIT score (40)		
	Male(%)	Female(%)	Total(%)
Normal drinking group	84 ( 17.9)	60 ( 12.8)	144 ( 30.7)
Hazardous drinking group	99 ( 21.1)	70 ( 14.9)	169 ( 36.0)
Estimated alcohol abuse group	44 ( 9.4)	112 ( 23.9)	156 ( 33.3)
Total	227 ( 48.4)	242 ( 51.6)	469 (100.0)

〈Table 3〉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1회 이하의 경도음주자 (77.7%)이지만 폭음률은 63.5%이었고, 여학생의 폭음률은 33.9%이었다.

본 연구대상자 전체의 AUDIT 평균점수는 11.81점이었으며 남학생은 12.89점, 여학생은 10.80점이었다. 〈Table 4〉에서 AUDIT 점수에 의한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자의 30.7%가 정상음주군, 위험음주군 36.0%, 알콜사용장애추정군 33.3%였다. 남학생은 위험 음주군에 속하는 비율(21.1%)이 가장 높았으며 알콜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하는 비율은 9.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여학생은 알콜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하는 비율(23.9%)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의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

학생들의 음주빈도는 높지 않으나 한번 마시면 폭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음주행동에 차이를 보였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독립변수(성별, 학년, 거주지, 음주시작연령, 부모의 음주, 부모의 양육형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 〈Table 5〉 성별, 학년, 음주시작연령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음주횟수, 음주량, 폭음횟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에 따라 음주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학년은 1학년과 4학년이었으며 두 집단 간의 평균차와 유의확률은



Table 5. Drinking behavior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of drinking		Drinking amount		Frequency of binge drinking	
		M	SD	M	SD	M	SD
Gender	Male	3.15	.802	3.89	1.229	3.17	1.224
	Female	2.86	.751	3.32	1.322	2.53	1.062
		t=4.234 / .000...		t=4.920 / .000...		t=6.177 / .000...	
Grade	Freshman	3.03	.874	3.68	1.334	3.00	1.161
	Sophomore	2.91	.833	3.52	1.252	2.74	1.232
	Junior	2.79	.861	3.36	1.553	2.52	1.210
	Senior	2.74	.919	2.60	1.288	2.24	1.226
		F=2.495/.059		F=6.749/.000...		F=6.188/.000...	
Type of living	With parents	2.90	.865	3.45	1.411	2.75	1.224
	Dormitory	3.08	.797	3.60	1.057	2.85	1.027
	Boarding	2.87	.833	3.59	1.387	2.70	1.304
	Relatives	3.23	1.166	3.77	1.423	3.00	1.080
	etc.	3.07	.997	3.21	1.477	3.00	1.240
		F=.946/.437		F=.522/.720		F=.368/.832	
First alcohol consumption	Elementary	3.09	.831	4.18	1.168	3.18	1.250
	Middle school	3.38	.896	4.02	1.293	3.34	1.314
	High school	3.06	.721	3.86	1.202	2.99	1.120
	University	2.85	.761	3.22	1.310	2.55	1.127
		F=8.900/.000...		F=12.477/.000...		F=10.065/.000...	
Parental drinking	Yes	2.94	.849	3.51	1.375	2.77	1.203
	No	2.81	.972	3.35	1.427	2.71	1.323
		t=.997/.322		t=.811/.418		t=.346/.729	
Parental attitude	Love type	2.90	.871	3.45	1.427	2.77	1.243
	Overprotection	2.96	.882	3.50	1.412	2.78	1.255
	Moderate type	2.90	.835	3.52	1.230	2.67	1.101
	Rejection type	2.83	.983	3.67	1.211	3.17	1.169
		F=.227/.878		F=.099/.961		F=.404/.750	

\*\*\*  $p < .001$

0.640\*( $p = .001$ ), 2학년과 4학년의 평균차와 유의확률은 0.551\*( $p = .005$ ), 3학년과 4학년은 0.491\*( $p = .024$ )였다. 학년별 폭음횟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학년은 1학년과 3학년으로 평균차와 유의확률은 0.477\*( $p = .011$ ), 1학년과 4학년은 0.753\*( $p = .011$ )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인 첫 음주시기에서는 초등, 중등 시기의 어린나이에 첫 음주를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생 시기에 음주를 시작한 학생들보다 음주횟수,

음주량, 폭음횟수가 높았다. 대학교에 들어와 음주를 시작한 학생들의 음주행동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음주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중학생과 대학생으로 평균차와 유의확률은 0.538\*( $p = .000$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차는 0.211\*( $p = .023$ )이었다. 또한 음주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와 유의확률은

0.792\*( $p = .000$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차는 0.634\*( $p = .000$ )이다. 폭음횟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중학생과 대학생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와 유의 확률은 0.785\*( $p = .000$ )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차는 0.436\*( $p = .001$ )이다. 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기숙사,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음주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형태가 거부형인 경우에 음주횟수, 음주량, 폭음횟수의 평균치가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4.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삶의 일부이며, 어떤 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정 반응으로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자극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까지는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며 질병도 유발하게 된다[16].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산업화 및 도시화, 가치관의 혼란과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는 대학생에게도 영향을 주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는 학업,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등으로 알려져 있다[1]. 그 중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는 개인의 적응적 자원을 넘어서는 학업과 관련된 과제가 수행되었을 때 나타나며 시험을 치르거나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하였다. 즉 시험 관련 스트레스는 모든 대학생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라고 판단된다. 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Chon[22]의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하여 8개 하위항목을 이용한 Kim[16]의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6개 하위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6개 하위척도는 크게 대인관계(가족, 친구, 이성과의 관계) 영역과 당면과제(학업, 장래 및 진로, 경제적 문제) 영역으로 분류되며,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경험의 유무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정도를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개 항목에 대한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의 차이는 <Table 6>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1.45점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항목별 평균점수를 보면 가족문제 1.45점, 친구문제 1.17점, 이성문제 1.10점, 학업문제 2.00점, 진로문제 1.67점, 경제문제 1.33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Table 6. Personal stressful problem by gender

Variables	Male		Female		t	p
	M	SD	M	SD		
Family problem	1.28	.972	1.61	1.036	-3.751	.000***
Friend problem	1.06	.890	1.26	.985	-2.444	.015*
Relationship problem	1.08	.973	1.11	1.064	-.401	.688
Academic problem	1.75	1.056	2.22	.997	-5.264	.000***
Future problem	1.48	1.092	1.84	1.126	-3.806	.000***
Economic problem	1.29	1.019	1.36	1.112	-.805	.421

\*  $p < .05$  \*\*\*  $p < .001$

Table 7. Personal stressful problem by grade

Variable	grade	M	SD	F/p
Family problem	Freshman	1,51	1,046	1,586/.192
	Sophomore	1,41	1,010	
	Junior	1,34	1,009	
	Senior	1,71	,892	
Friend problem	Freshman	1,22	,954	3,345/.019*
	Sophomore	1,05	,931	
	Junior	1,12	,956	
	Senior	1,55	,824	
Relationship problem	Freshman	1,12	1,005	3,636/.013*
	Sophomore	1,01	,987	
	Junior	1,01	1,023	
	Senior	1,58	1,142	
Academic problem	Freshman	1,84	1,007	3,525/.015*
	Sophomore	2,11	1,080	
	Junior	2,02	1,120	
	Senior	2,33	,817	
Future problem	Freshman	1,39	1,025	8,932/.000***
	Sophomore	1,79	1,179	
	Junior	1,84	1,117	
	Senior	2,16	1,094	
Economic problem	Freshman	1,39	1,081	1,595/.190
	Sophomore	1,30	1,078	
	Junior	1,19	1,039	
	Senior	1,57	1,027	

\*  $p < .05$  \*\*\*  $p < .001$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4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으며 스트레스 6개 영역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영역으로 학업문제, 진로문제였는데, 이는 Park[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24]은 10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했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순으로 학업문제, 진로문제, 교수와의 관계였다. 본 조사에서 남녀학생들의 스트레스 차이는 6개 항목 중에서 이성관계, 경제문제를 제외한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항목은 학업문제, 진로문제, 경제문제 순이었고, 여학생은 학업문제, 진로문제, 가족문제 순으로 남녀 학생 모두가 학업과 진로문제에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여학생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별 차이를 보면 친구관계, 이성관계, 학업문제, 진로문제의 4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4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이 4개 항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 변수별로 보면 친구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학년은 4학년과 2학년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와 유의확률은  $0.501^*(p = .033)$ 이며, 이성문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학년은 4학년과 2학년  $0.571^*(p = .021)$ , 4학년과 3학년은  $0.569^*(p = .029)$ 이었다. 학업문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학년은 4학년과 1학년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와 유의확률은  $0.484^*(p = .011)$ 이었다. 4학년은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나가야하는 학년이므로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variables (1)

Variables	Frequency of drinking				Drinking amounts			
	B	$\beta$	t	p	B	$\beta$	t	p
Constant value	3.476	-	17.119	.000	4.477	-	13.421	.000
Gender	.275	.176	3.812	.000***	.525	.202	4.431	.000***
First alcohol consumption	-.198	-.196	-4.385	.000***	-.420	-.250	-5.670	.000***
Father drinking	.022	.029	.647	.518	.042	.033	.750	.454
Family problem	.024	.032	.542	.588	.074	.058	1.004	.316
Friend problem	-.084	-.100	-1.475	.141	-.063	-.045	-.672	.502
Relationship problem	.142	.184	3.124	.002**	.149	.116	1.997	.046*
Academic problem	.045	.060	.949	.343	.116	.094	1.501	.134
Future problem	-.069	-.099	-1.593	.112	-.128	-.110	-1.805	.072
Economic problem	-.058	-.080	-1.442	.150	-.042	-.035	-.643	.521
R <sup>2</sup> = .107 Modified R <sup>2</sup> = .089				R <sup>2</sup> = .131 Modified R <sup>2</sup> = .114				
F = 6.150 p = .000				F = 7.727 p = .000				
Dubin Watson = .156				Dubin Watson = 1.603				

\*  $p < .05$  \*\*  $p < .01$  \*\*\*  $p < .001$

로 다른 학년에 비해 학업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제 대학생살을 시작한 1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학업과 진로문제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로문제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학년과 1학년 0.772\*( $p = .002$ ), 3학년과 1학년 0.453\*( $p = .004$ ), 2학년과 1학년 0.404\*( $p = .005$ )이었다. 가족관계나 경제문제도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5.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음주시작연령, 아버지음주와 스트레스 6개 하위요인인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학업문제, 진로문제, 경제문제의 변인들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8>과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음주빈도 10.7%, 음주량 13.1%, 폭음횟수 15.9%였다. 음주

빈도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음주시작연령, 이성문제 그리고 폭음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음주시작연령, 이성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beta$  값에 의하면 음주시작연령( $\beta = -.196$ ,  $p < .001$ )이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고, 다음으로 이성문제( $\beta = .184$ ,  $p < .01$ ), 성별( $\beta = .176$ ,  $p < .001$ ) 순이었다.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는 음주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주시작연령( $\beta = -.250$ ,  $p < .001$ )이었으며, 다음으로 성별( $\beta = .202$ ,  $p < .001$ ), 이성문제( $\beta = .116$ ,  $p < .05$ ) 순이었다. 폭음빈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성별( $\beta = .259$ ,  $p < .001$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음주시작연령( $\beta = -.225$ ,  $p < .001$ ), 이성문제( $\beta = .186$ ,  $p < .01$ ) 순이었다. 스트레스 요인에서 성별, 학년별 차이를 보았을 때 학업, 진로문제의 평균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다중회귀분석결과 이성문제( $\beta$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variables (2)

Variables	Frequency of binge drinking			
	B	$\beta$	t	p
Constant value	3.455	-	11.517	.000
Gender	.615	.259	5.764	.000***
First alcohol consumption	-.343	-.225	-5.140	.000***
Father drinking	.029	.025	.574	.566
Family problem	.052	.045	.778	.437
Friend problem	-.135	-.105	-1.589	.113
Relationship problem	.218	.186	3.247	.001**
Academic problem	.147	.131	2.114	.035*
Future problem	-.127	-.120	-1.980	.048*
Economic problem	-.066	-.060	-1.115	.266
		R <sup>2</sup> = .159	Modified R <sup>2</sup> = .143	
		F = 9.640	p = .000	Dubin Watson = 1.374

\*  $p < .05$  \*\*  $p < .01$  \*\*\*  $p < .001$

=.186,  $p < .01$ ), 학업문제( $\beta = .131$ ,  $p < .05$ ), 진로 문제( $\beta = -.120$ ,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음주시작연령이 낮을수록, 이성문제, 학업과 진로문제로 인하여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많아지고 폭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음주 변인은 본 조사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IV. 고찰

본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음주특성과 음주행동을 파악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고, 대학생들의 음주심각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음주사고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생의 남녀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학년별 비율에서 1학년 학생들의 비율은 비교적 높았으나 4학년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낮아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부분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들의 음주율은 96.2%였다. Park과 Choi[23]는 자기효능증진 절주 프로그램이 음주여대생의 음주관련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 음주결과과기대, 문제음주행위 대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고 절주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의하였다.

Yoon[12]에 의하면, 청소년의 월간 음주율은 28.6%이며 남자 28.8%, 여자 27.2%로 고등학생 과반수 이상이 폭음을 하였다. 여학생의 폭음횟수가 더 많았고, 청소년 시기의 음주는 성인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대학생들의 월간 음주율은 85.4%이며, 폭음률에서 남학생 42%, 여학생 42.7%로 여학생들의 폭음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40%가 월 2~4회 음주를 하였는데, 과음자가 70%였다고 한다. 「2014 지역사회건강통계」에서는 제주지역 남녀 월간음주율이 각각 78.4%, 44.2%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대학생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대학생들의 건강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23].

〈Table 3〉의 결과에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 1회 이하의 경도음주자 (77.7%)이지만 폭음률은 63.5%로, 보통 7잔 이상을 마시는 한국대학생들의 비율이 40.9%에 이른다는 Lee[13]의 결과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에서 나타난 여학생의 폭음률 33.9%를 Yoon[12]의 음주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연령별로 여성의 경우 20대의 폭음률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제주지역 남성의 경우 20대의 폭음률이 21.3%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의 남자대학생 폭음률(29.5%)이 제주지역 20대 남자의 폭음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남녀모두 폭음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 20대 폭음률이 34.2%로 전국 20대 여성의 폭음률 15.9%보다 2배 정도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51.7%가 대학입학 이전에 음주를 시작하였고 고등학생 시절에 음주를 시작한 학생이 36.7%였다. 음주시작연령이 어린나이에 첫 음주를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생 시기에 음주를 시작한 학생들보다 음주횟수, 음주량, 폭음횟수가 높았다( $p < .001$ ).

이는 음주시작연령이 빠를수록 문제음주정도가 커진다는 Kim과 Kim[25]의 조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Kim과 Kim[25]은 AUDIT에 의한 문제음주율은 음주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알콜남용(33.3%), 알콜의존(25.0%)이 높고, 성인이 된 후 음주한 경우는 문제없음(45.2%)이 높게 나타나 음주시작연령은 문제음주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p < .001$ ). 음주시작연령은 AUDIT에 따른 문제음주 및 음주관련문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문제음주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 1학년 학생들의 음주행동 평균치가 가

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대학교에 들어와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각종 모임과 친구들과의 사교성 음주의 기회가 많은 이유일 것이라 보이고, 반대로 4학년 학생들의 음주행동의 평균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친구들과의 사교적 모임보다는 학업 및 진로 등의 장래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학년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음주를 시작할 때 친구나 동창과 함께 마셨다는 응답이 63.8%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마셨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했다. Lee[13]는 대학생의 폭음률이 56.9%로 처음 음주권유한 사람이 부모나 집안어른일 경우가 친구나 동료들에 의해 처음 권유받은 경우보다 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5.2배나 높았으며 음주에 대해 적극적인 경향을 가진 학생이 소극적인 경향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31.8배가 된다고 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알콜사용장애 추정군 33.3%는 Lee[13]의 14.6%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가 자녀들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에서 보면, 부모가 알코올을 남용하거나 음주정도가 많을수록 자녀가 문제음주가 될 위험이 높았고[26] 부모의 음주는 청소년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행동에 있어서 가족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부모의 음주행동은 자녀들에게 학습되어 전달되며[27] 아버지의 음주는 어머니의 음주보다 문제음주와 더 큰 상관관계를 가져 음주빈도, 평균음주량, 폭음빈도, 위험음주 등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여성의 음주량과 폭음율은 남성보다 높은 연구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는 여성들의 음주상태로 인하여 성폭행과 같은 위험상황

에 노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알코올 분해속도가 남성보다 느려 건강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Lee[9]는 여성의 높은 음주율은 여러 가지 위험을 야기하는데, 여성의 경우 수분이 적고 체지방이 많아 같은 양의 술을 마신 남성보다 신체적 손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음주 여성의 유방암 유병률이 비음주 여성보다 40%나 높았고, 여대생의 높은 음주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 중이다.

## V. 결론 및 제언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음주특성과 음주행동을 파악하여 건전한 음주문화와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음주행동과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제주지역 대학생 5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47.4%, 여자 52.6%였으며, 1학년 40.3%, 2학년 30.8%, 3학년 22.0%, 4학년 6.9%였다. 조사대상자 음주율은 96.2%였으며 음주시작연령은 51.7%가 대학입학 이전에 음주를 시작하였다. 절주나 금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42.4%였고 최근 음주를 함께한 대상으로 친구나 동창이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빈도에서 주 1회 이하의 경도음주를 하는 학생은 76.9%이고, 여학생의 폭음률은 33.9%이고 남학생의 폭음률은 29.5%로서 여학생의 폭음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AUDIT 점수에 의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은 위험 음주군(21.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알콜사용장애 추정군(23.9%)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에 따른 음주행동의 차이를 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음주횟수, 음주량, 폭음횟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p < .001$ ), 음주시작연령이 어린나이에 첫 음주를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생 시기에 음주를 시작한 학생들보다 음주횟수, 음주량, 폭음횟수가 높았다( $p < .001$ ).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1.45점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항목별 평균점수를 보면 가족문제 1.45점, 친구문제 1.17점, 이성문제 1.10점, 학업문제 2.00점, 진로문제 1.67점, 경제문제 1.33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음주빈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음주시작연령( $\beta = -.196, p < .001$ ), 이성문제( $\beta = .184, p < .01$ ), 성별( $\beta = .176, p < .001$ ) 순이었고,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음주시작연령( $\beta = -.250, p < .001$ ), 성별( $\beta = .202, p < .001$ ), 이성문제( $\beta = .116, p < .05$ ) 순이었고, 폭음횟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beta = .259, p < .001$ ), 음주시작연령( $\beta = -.225, p < .001$ ), 이성문제( $\beta = .186, p < .01$ )였다.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음주시작연령, 성별, 이성문제이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음주시작연령이 낮을수록, 이성문제, 학업과 진로문제로 인하여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많아지고 폭음으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행위, 특히 폭음행위(binge drinking)와 관련된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28].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대책은 학교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음주예방·치료프로그램은 일부 사회기관에서 치료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음주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적다[29]. 대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앞으로 사회인이 될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대학입학 이전의 어린나이에 시작된 음주는 높은 폭음률을 보이고, 폭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행,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학생들의 높은 폭음률은 건강을 해치는 문제만이 아니라 성폭행 등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어린나이에 시작된 음주로 인하여 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조기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 References

1. Lee JY, Chun JS. Influential factors on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alcoholic clients in community based alcohol treatment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5B):2605-21.
2. Seo YS, Kim M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ess perception, coping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students in different major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8(1B):525-35.
3. Kang GM, Kim KK, Kang CW. A study of cancer-related gene exploration using PCA logistic re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3B):1241-8.
4. Shim H, Choi YH. Modeling and forecasting of cancer incidence rate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6B):3107-20.
5. Yu M, Choi JH. The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risk behaviors of adolescents in urban and rural areas: Focusing on developmental asset, happiness,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14(6B):3189-3204.
6. Choi YJ. The effect of external locus of control in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isolation.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2012;13(1):73-84.
7. Kang JE, Choi HS, Choi JH, Yeo SH, Jung ST, Kim MH. A Comparative Analysis of Drinking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014;25(1):19-27.
8. Buettner CK, Andrews DW, Glassman M. Development of a student engagement approach to alcohol prevention. The pragmatics project. *J of American College Health* 2009;58(1):33-8. <http://dx.doi.org/10.3200/JACH.58.1.33-38>
9. Lee OE. Problem drinking in female college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the intention to drink moderate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Seoul, Korea.
10. Jamison J, Myers LB. Peer-group and price influence students drinking along with planned behaviour. *Alcohol and alcoholism* 2008;43(4):492-7. <http://dx.doi.org/10.1093/alcalc/agn033>
11. Seo YS, Do ES. Affecting factors of the drinking behavior of liver cirrhosis patients: The aspects of convergence of drinking behavior and disease-related of



- factors. *J of Digital Convergence* 2015; 13(7):249-58. <http://dx.doi.org/10.14400/JDS.2015.13.7.249>
12. Yoon SJ. Impact of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on Problem Drinking among Older Adults. *J of Digital Convergence* 2016; 14(4):11-7. <http://dx.doi.org/10.14400/JDS.2016.14.4.11>
  13. Lee EK.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of male workers according to occupational classes. *J of Digital Convergence* 2015;13(1): 375-82. <http://dx.doi.org/10.14400/JDS.2015.13.1.375>
  14. Tak YJ.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risk behaviors and injuries between elderly and young population in Korea: application of convergence educational concept. *J of Digital Convergence* 2015;13(5):289-96. <http://dx.doi.org/10.14400/JDS.2015.13.5.289>
  15. Kim HJ, Shin HG, Hong CH.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trait-anger, and drinking problem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effectivenes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27(3):729-48. <http://dx.doi.org/10.15842/kjcp.2008.27.3.009>
  16. Kim ES. The impact of stress on drinking behavior and drink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2, Chonbuk, Korea.
  17. Yoo IS, Choi EM, Kwon HJ, Lee SG. Drinking pattern and nonfatal injuries of adul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13(4): 1690-8. <http://dx.doi.org/10.5762/KAIS.2012.13.4.1690>
  18. Kim YS.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Motives for Drinking and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00;9(1):5-23.
  19.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The Physician's guide to helping patients with alcohol problem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05.
  20. Lee JH, Lee JH. Convergence study on health risk behavior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Seoul vs. Non-Seoul Area. *J of Digital Convergence* 2015;13(5):345-56. <http://dx.doi.org/10.14400/JDS.2015.13.5.345>
  21. Kim KK, Jang SO, Jekarl J. Effects of environmental correlates on alcohol-related problems among colleges. *Korean J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6;23(3):65-83.
  22. Chon KK, Kim KH. Development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 A control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1;10(1):137-58.
  23. Park G, Choi SH.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ng reducing alcohol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outcome expectancy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of wome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9): 364-73.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9.364>
  24. Park KI. The impact of stress on drink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2, Seoul, Korea.
  25. Kim YS, Kim BR. Factors affecting problematic drinking by university students in

- Chuncheon Area, J. of Korean Soc Food Sci Nutr 2014;43(6):934-942. <http://dx.doi.org/10.3746/jkfn.2014.43.6.934>
26. McDermott D.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drug use and parent's attitude concerning adolescent drug use to adolescent drug use, Adolescence 1984;19:89-97.
27. Park J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n Public Health Res 2000;26(4): 393-413.
28. Cha DP. Understanding Binge-Drinking :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5;49(3):346-90.
29. Yang SH, Kim JH. Drinking habits of employees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J of Digital Convergence 2012;10(10):363-72.